

[표 1] 국가채무(D1), 일반정부 부채(D2) 및 경제성장률 비교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 (A)	2020 (B)	B-A	2020 실질 성장률	
캐나다	113.2	112.8	108.9	108.4	106.3	138.2	31.9	-5.4	
프랑스	106.4	109.3	110.6	109.7	109.7	129.1	19.4	-8.2	
독일	72.3	69.3	65.1	61.8	59.7	69.8	10.1	-5.1	
이탈리아	135.3	134.8	134.1	134.4	134.6	155.8	21.2	-8.9	
일본	230.5	235.7	233.5	235.9	237.6	257.9	20.3	-4.7	
한국 <sup>1)</sup>	D1	35.7	36.0	36.0	35.9	37.6	43.8	6.2	-0.9
	D2	40.8	41.2	40.1	40.1	42.2	—	—	
영국	92.5	88.7	88.1	87.4	88.3	107.6	19.3	-9.9	
미국	136.5	138.1	134.7	136.2	135.0	160.3	25.3	-3.5	

주: 1) 한국의 D1(국가채무)은 D2와의 비교를 위해 추가한 것임

1. 우리나라의 2020년 일반정부 부채(D2)는 2021년 12월 발표 예정임

자료: OECD, *National Account, Public Sector Debt, Consolidated, Nominal value*.(stats.oecd.org, 접속: 2020.7.1..)

OECD, *Economic Outlook*, No.,109. 2021.05. (stats.oecd.org, 접속: 2020.7.1.)

[표 2] 지속가능성 검정 방법들의 장단점

접근법	장점	단점	대표 선행연구
요약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용하기 간단함</li> <li>• 첫 근삿값이 좋음</li> <li>• 다른 모형 체계와 함께 사용 가능</li> <li>• 이해하기 쉬움</li> <li>• 연구들 간의 결과 비교가 쉬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른 모형의 투입이 필요</li> <li>• 불확실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</li> <li>•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</li> </ul>	<p>Buiter 외(1985) Blanchard 외(1990)</p>
계량 경제적 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론으로부터 직접 도출</li> <li>• 과거 정책들에 대한 연구에 유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부분 회귀적 분석; 전망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움</li> </ul>	<p>Hamilton과 Flavin(1986) Bohn(1998, 2005)</p>
VaR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을 명확히 설명</li> <li>• 공공재무제표가 전체로써 분석됨</li> <li>• 다른 모형 체계와 사용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규모의 자료 필요 (공공재무제표 등)</li> <li>• 모형구축에 많은 노력 필요</li> <li>• 장기분석이 어려움</li> </ul>	<p>Barnhill과 Kopits(2003)</p>
재정한도 및 재정여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방식과 다름</li> <li>•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을 명확히 설명</li> <li>• 이해하기 쉬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재정한도) 매우 모형에 좌우됨</li> <li>• (재정여력) 대규모의 자료 표본 필요</li> </ul>	<p>Bi(2012) Cochrane(2011) Leeper와 Walker(2011) Ostry 외(2010) Ghosh</p>
일반균형 모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호작용을 명확히 설명</li> <li>• 구조적으로 경제의 세부적이며 정확한 설명</li> <li>• 국가별 특성을 모형화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형 구축에 많은 노력 필요</li> <li>• 많은 파라미터 값을 계산해야 함</li> <li>• 모형의 예측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</li> </ul>	<p>van Ewijk 외(2006) Andersen과 Pedersen(2006)</p>
세대간 회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방식과 다름</li> <li>• 세대간 형평성이 고려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호작용 또는 불확실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</li> <li>• 연령층별로 정확하게 지출 혜택을 배분하는 것이 어려움</li> </ul>	<p>Auerbach 외(1991) Gokhale과 Smetters(2003)</p>

자료: Sarvi(2011)

[표 3]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감요인 분해

연도	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감분	기초 재정 수지 <sup>1)</sup>	금리-성장률 차이			금융성 채무 변동	저량/ 유량 조정 등
				실질 금리	실질 성장률		
2001	0.2	0.1	-0.1	0.2	-0.3	0.6	-0.4
2002	-0.2	-1.5	-0.2	0.2	-0.4	0.4	1.2
2003	2.7	-0.9	-0.1	0.1	-0.2	1.1	2.7
2004	2.6	-0.5	-0.2	0.1	-0.3	1.2	2.2
2005	3.5	-0.2	0.0	0.3	-0.4	1.5	2.2
2006	2.2	-0.1	0.0	0.5	-0.5	0.8	1.5
2007	-0.7	-1.6	-0.3	0.3	-0.6	-0.4	1.7
2008	-0.7	0.1	0.0	0.3	-0.3	-0.5	-0.3
2009	3.1	2.6	0.1	0.2	-0.1	0.6	-0.2
2010	-0.2	0.0	-0.6	0.2	-0.9	-0.8	1.3
2011	0.6	-0.1	-0.1	0.4	-0.5	0.3	0.5
2012	0.5	0.2	0.0	0.3	-0.3	0.1	0.2
2013	1.9	0.5	-0.1	0.3	-0.5	0.3	1.2
2014	1.5	1.0	-0.2	0.4	-0.5	0.0	0.6
2015	1.6	1.4	-0.7	-0.2	-0.5	-0.1	0.8
2016	0.3	0.5	-0.6	-0.1	-0.6	-0.4	0.8
2017	0.0	0.2	-0.6	0.0	-0.6	0.2	0.1
2018	-0.1	-0.2	-0.2	0.4	-0.6	0.3	-0.1
2019	1.7	2.1	0.1	0.5	-0.4	0.5	-1.0
2020	6.2	5.0	0.2	0.0	0.2	0.9	0.1
2021	3.5	5.4	-1.0	0.1	-1.0	0.2	-1.2
2022	2.9	3.6	-0.6	0.3	-0.9	0.5	-0.6
2023	2.9	3.9	-0.4	0.3	-0.8	0.5	-1.1
2024	3.0	3.9	-0.5	0.3	-0.8	0.5	-0.9
2025	2.7	3.8	-0.5	0.3	-0.8	0.0	-0.6

주: 1) 기초재정수지(Primary Balance)는 이자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로, 재정수입-(재정지출-이자지출)임

자료: ○○○ 및 □□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

[표 4] S1 지속가능성 격차 지표 비교

국가	S1			
		IBP	DR	LTC
한국	2.7	1.6	-1.1	2.2
벨기에	4.3	-1.2	4.6	0.9
불가리아	-3.1	-1.2	-2.5	0.7
체코	-0.9	-0.8	-1.2	1.1
덴마크	-4.2	-2.8	-1.5	0.1
독일	-1.1	-2.3	0.2	1.0
에스토니아	-2.9	-0.7	-2.3	0.1
아일랜드	-1.8	-2.8	-0.1	1.0
스페인	7.7	0.8	5.4	1.5
프랑스	4.4	-0.6	4.8	0.3
크로아티아	-1.5	-2.2	1.6	-0.9
이탈리아	9.2	1.4	6.5	1.4
사이프러스	-0.6	-3.4	2.2	0.6
라트비아	-1.8	-1.1	-1.0	0.3
리투아니아	-1.0	-0.9	-1.0	1.0
룩셈부르크	-3.9	-2.8	-2.6	1.4
헝가리	-0.3	-1.8	0.6	0.9
말타	-3.5	-3.3	-1.1	0.9
네덜란드	0.1	-1.8	0.3	1.6
오스트리아	-0.3	-2.9	1.4	1.2
폴란드	-1.6	-1.2	-0.5	0.1
포르투갈	2.0	-2.9	4.0	0.9
루마니아	14.8	8.8	4.3	1.7
슬로베니아	1.6	-1.6	0.9	2.2
슬로바키아	3.2	-0.2	1.5	1.9
핀란드	0.9	-0.8	1.0	0.8
스웨덴	-3.1	-1.8	-1.6	0.3
EU	2.3	-0.9	2.3	0.9
유럽지역	2.8	-1.1	2.9	1.0

주: 유럽국가들은 2035년(T년)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%로 목표로 함  
 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21) 외